신안 홍도 철 지난 괭생이모자반 골치

동중국해서 대량 유입
흑산·비금·도초 등 확산 우려
군, 예산 배정 등 초동대처 총력

홍도연안여객선터미널 인근 항내로 유입된 괭생이모자반. 〈신안군 제공〉

신안군 흑산면 홍도 해역에 때를 지나 중국 괭생이모자반이 대량 유입돼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신안군은 최근 동중국해 북부 해역에서 분포하다 바람과 해류의 영향으로 '바다의 불청객' 괭생이모자반이 홍도 해역에 대량 유입됐다고 밝혔다.

신안군에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주요 해역에 187t의 괭생이모자반이 유입됐다. 통상 괭생이모자반은 2월 이후 산발적인 양상을 보이다 수온이 높아지는 5월부터는 소강상태를 보인다.

하지만 최근 들어 홍도는 물론 흑산과 비금, 도초 등 주요 해역에 추가 유입이 예상돼 초동 대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괭생이모자반은 해안가에 유입될 경우 악취 발생과 자연경관을 오염시키고 양식시설에 부착해 수산물 품질을 훼손시키고 있으며, 모자반 제거를 위한 인력과 시간이 소요돼 어가피해 및 소득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신안군은 괭생이모자반 대량 유입 시 신속한 수거·처리를 위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비 19억 9000만원을 올 초 읍·면 배정해 초동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바다환경지킴이, 어촌계 조업어선, 여객선 등을 활용한 통합 예찰활동으로 신속한 상황전파 체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한 상황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유입된 괭생이모자반 수거·처리가 적기에 이뤄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추가 유입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안군에서는 2021년 5314t의 괭생이모자반이 김 양식장 등에 유입돼 12억원의 피해를 입혔으며,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인력 5348명, 장비 2112대 등을 동원해 수거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서울청년, 해남에서 창업하세요

해남군 지역연계형 지원사업
'넥스트 로컬' 4기 참여자 모집

해남군은 '2022년 서울시 지역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 넥스트 로컬(NEXT LOCAL) 4기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10일까지이며 모집대상은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이다.

사업 선정자에게는 지역자원조사활동(최대 100만원·인, 2개월), 창업교육, 사업화지원금(최대 7000만원·팀), 멘토링 등의 지원을 통해 지역에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에서 2019년부터 전국 지자체와 협력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해남군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며, 전국 20개 지자체가 참여한다. 지역자원을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창업 아이디어를 도출해 청년창업을 지원, 지역 내 청년 유입과 청년 창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신청은 서울시 넥스트로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2 넥스트로컬 운영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해남군의 농수축산물 등 풍부한 지역자원이 청년 창업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되어 지역을 활성화하고, 청년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국산김치 사용 인증업소 식자재 구입비용 지원
무안군 194곳 25만원씩

무안군이 국산김치 사용 인증업소에 식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일반음식점 중 국산김치 자율표시위원회로부터 국산김치 사용 인증을 받은 업소다.

무안 관내에서는 194개소가 인증을 받았다.

이번 사업을 통해 업소당 최대 25만원까지 지원한다고 군은 설명했다.

전남 대표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장터를 통해 국산김치 제조에 필요한 배추, 고춧가루, 소금, 마늘, 젓갈 등 김치 원·부재료와 완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음식점은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매월 말일 이내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진희 무안군 농정과장은 "외식업소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목포 대양산단 전경.

목포시 '대양산업단지 조성' 지방채 조기 상환

분양 활성화로 800억 중 600억 변제

목포시가 지방채 상환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목포시에 따르면 시는 대양산단 조성을 위해 지난 2019년 발행한 지방채 800억원 중 지난 3월까지 300억원을 조기 상환한데 이어 이날 만기가 도래한 300억원을 상환했다.

시는 대양산단 조성을 위해 지난 2012년 금융권에서 높은 금리(3.2%)로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2019년 낮은 금리(1.9%)로 지방채 800억원을 발행했으며, 이에 따라 연 12억원의 이자를 절감했다.

시가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방채의 일부를 상환할 수 있었던 것은 대양산단이 원활하게 분양됨에 따라 매각대금을 지방채상환기금에 적립했기 때문이다.

현재 대양산단의 분양률은 98%로 미분양 산업용지 2필지는 올해 안에 분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양산단 잔여 지방채 200억원도 조기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의 지방채 잔여액은 대양산단 200억원과 일반사업 지방채 200억원이며, 단계적으로 조기 상환할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미분양 용지를 올해 안으로 매각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축하는 등 지방채 조기상환과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완도군 온라인 쇼핑몰 '완도군이숍' 새 단장

17일까지 전복 20% 할인판매

완도군의 대표 온라인 쇼핑몰인 완도군이숍이 오는 2일 새롭게 단장해 오픈한다.

완도군이숍은 2004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18년간 군에서 운영했으나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온라인 유통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전자상거래 전문 업체인 (주)리얼커머스에 위탁했다.

완도군이숍에는 산 전복, 순살 전복, 전복 가공품뿐만 아니라 김·미역·다시마·멸치 등으로 구성된 수산물 세트, 유자차, 모링가차, 황칠 즙 등 다양한 품목이 입점해 있다.

군은 오픈 기념으로 완도군 전복 홍보 대사이면서 전복 광고 모델인 가수 영탁을 쇼핑몰 메인 광고에 싣고 전복 최대 1만원 할인, 적립금 지급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17일까지 전복 구입 시 20% 할인과 무료 배송을 한다. 〈사진〉

신규 회원 가입 시 적립금 2000원, 제품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제품당 1회 최대 1000원을 적립금으로 지급한다.

완도군 관계자는 "완도군이숍 활성화로 소비자에게는 맛 좋고 우수한 특산물을 제공하고 지역 농어가와 소상공인에게는 안정적 판로 확보와 소득 증대로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목포해수청, 목포남항 투기장 환경 개선

84억 투입 13만㎡ 복토 악취 해결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준설토 투기가 완료된 목포남항 투기장에 대한 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한다.

투기장 서측 약 13만㎡를 쇄석으로 복토해 악취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라고 목포해수청은 설명했다.

84억원이 투입될 이 사업은 오는 8월 시작해 2024년 완료 예정이다.

목포남항 투기장은 투기된 준설토의 물(간극수)이 빠져나와 만들어진 웅덩이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많았다.

서동현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장은 "이 사업이 끝나면 투기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지반 안정화를 통해 향후 남항 투기장 재개발사업 추진 시 사업 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